

12 참여마당

과거로부터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이야기 자연사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

안 범 철

자연사박물관
bioi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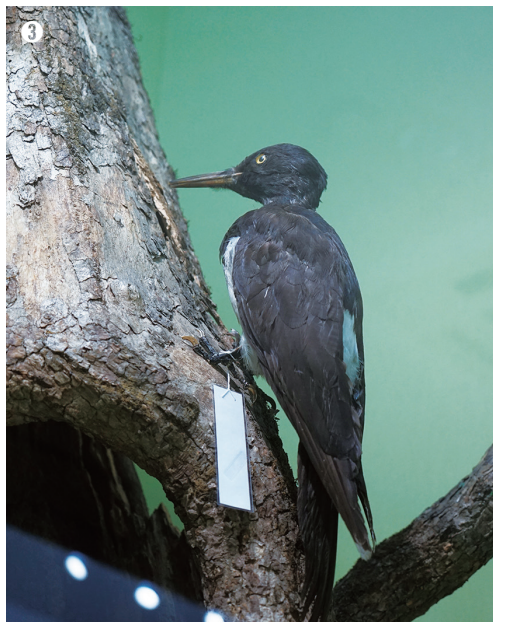
경희대학교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 중이다. 그중 박물관은 자연사 박물관을 비롯해서 중앙박물관, 혜정박물관이 있고, 단과대학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대학 한의학 역사박물관, 간호과학대학 간호역사박물관, 약학대학 박물관, 미술대학 경희 미술관이 운영 중이다. 또한 아직 전시실은 없지만 우리 대학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경희 기록관도 있다. 경희대학교의 창학정신이 “문화 세계 창조”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받아 박물관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러 박물관 중 자연사박물관은 보는 관점에 따라 독특한 박물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박물관일 수도 있다. 어릴 때 가봤던 곳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공통 보러 가는 곳쯤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대학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다른 나라의 자연사박물관과는 차이가 있다. 자연사박물관은 많은 연구자와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표본)를 기반으로 우주와 지구, 생물과 인류의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연의 숙제를 풀어 나아가는 곳으로, 그 연구 자료가 특별 전시 또는 상설 전시가 되어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연사박물관은 표본자료의 수집이나 연구보다는 전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만을 위한 박물관이거나 화려한 전시를 통하여 관람객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박물관의 기본인 수집, 연구 기능이 활발한 곳이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전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아직 없다. OECD 회원국 중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자



자연사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안범철 학예연구사는 자신이 가장 가까운 박제 3점을 자랑했다. 차례대로 말, 황새, 크낙새다.



(사진=이지수 기자)

“

박물관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곳이다.

”

사진 ① 안범철 학예연구사가 기증 제보를 받고 찾아간 말 사체는 450kg였다. 운반부터 계속되는 박제 작업까지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구슬땀을 흘리는 시간은 길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말 박제는 10여 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사진 ② 우리나라 텃새로서의 마지막 수컷 황새가 밀렵꾼에 의해 사살됐다. 평생 하나의 짝만을 만나는 황새의 특성 탓에 마지막 암컷 황새 또한 무정란만을 낳다 죽었다. 자연사박물관이 그 수컷의 마지막을 찾아나섰다. 세상을 떠난 마지막 황새 수컷은 우리학교 자연사박물관에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 있다.

사진 ③ 크낙새와 함께 찍힌 사진 속 조명에는 황당한 일화가 있다. 방문객이 크낙새 사진을 촬영해 제가 발견한 양 사진을 팔고 사례금을 챙긴 것이다. 소식을 들은 자연사박물관은 절치부심했다. 어떤 각도로 촬영해도 크낙새와 함께 조명이 담기도록 배치를 달리했다. 크낙새와 함께 담기는 조명은 자연사박물관의 자랑스러운 워터마크다.

연사박물관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다양한 국립기관들이 있지만 “국립자연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의 기관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는 지자체, 관계부서, 예산, 전략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자연사박물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같은 공립 박물관도 있고, 대학에서는 경희대, 이화여대, 한남대, 충남대, 경북대, 성신여대, 전북대에서도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1978년부터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실 6개, 약 1,500㎡의 전시면적과 500㎡이 수장고, 교육실 등, 결코 작지 않은 박물관이다.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최근에 만들어진 박물관처럼 화려하지는 않으며, 어떻게 보면 레트로(retro) 한 느낌이 물씬 풍기기도 한다. 하지만 45년 전 개관 당시는 동양 최대의 자연사박물관으로 우리나라의 조류는 거의 대부분 소장되어 있고, 어류, 곤충, 지질 자원 등 수많은 표본을 확보한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사박물관으로, 개관 당시의 기록을 보면 조영식 학원장님, 초대 관장 원병오 교수님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관식을 진행했을 정도였고, 연구원들도 상당수 상주하고 있는 기관이었다. 그렇게 개관했던 자연사박물관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때도 있었고, 한 때는 그런 일을 할 담당자가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다. 전시실 개편, 전시물 수리, 표본의 수집, 10만여 점의 소장 표본 정리,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박물관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변변치 않던 수장고 시설을 개편하여, 찾아보기 어렵던 표본들이 안정화된 시설 안에서 관리되고 정리되어 연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대학 자연사박물관으로써 매우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시실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노후화된 전시시설을 조금씩이나마 수리하고 보수하여 전시물을 관찰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얼마 전 ‘말’이 전시되었다. 우리나라에 ‘말’이 상설전시되어 있는 곳은 흔치 않은 일이다. 2007년에 말의 사체를 기증받아서 박제 제작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필요 자제를 수입하여 2021년에 전시가 완료되었고, 긴 시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전시한 대형 표본으로 이는 어떤 이에게는 추억을,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주게 될 우리 자연사박물관의 또 하나의 대표 전시물이 되었다.

입구에 있는 곰이나 화석, 광물, 생물표본들을 보고 많은 관람자들은 진짜인지 궁금해한다. 우리 박물관에 전시된 다양한 표본들은 모두 진짜 표본이지만 단 한 가지만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원앙사촌(*Tadorna cristata*)으로 우리나라에

서 살던 조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적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표본이 3점 밖에 없다. 우리 박물관도 표본을 소장되지 못한 채 멸종된 종으로 이 모형은 표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우리 박물관에 기증한 나뭇사연이 깊은 전시물이다.

이렇게 박물관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곳이다.

우리 대학 학생에게 박물관의 문턱이 낮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학생들에게 자연사박물관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박물관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야기가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두더지 발톱의 길이와 각도를 모방하여 굴삭기 삽날을 개선하고, 연잎의 방수구조를 모방하여 기능성 원단을 개발하거나, 파랑새나 곤충의 구조 색(Structural coloration)을 연구하여 변색되지 않은 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자연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과 진화를 거쳐온 결과물로 우리가 상상하기 전에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물관의 전시물을 보고, 관찰하고, 자신의 상상을 더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에 그 상상도 다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보다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